



사진 왼쪽부터 '황후의 품격', '왜그래 풍상씨', '동네변호사 조들호2', '아이템'

/SBS·KBS·MBC 제공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겨울·봄 안녕' 공연



문화예술그룹 '루트머지'

지상파 드라마, 각종 사고에 불화설까지

“좋은 콘텐츠 제작보다 자극적 연출·톱배우에 의존”

극본·배우·제작비 기근이라는 '삼중고'에 빠진 지상파 드라마들이 단기 시청률을 높이려 취한 전략들이 자중수가 돼 돌아왔다. 최근 tvN·JTBC를 위시한 비지상파에 밀린 지상파들은 주말극에서 활동해온 스타 작가들 평일 미니시리즈로 데려오거나 작품을 무리하게 연장하고, 톱배우에 의존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런 단기 처방은 작품 초반부터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예가 SBS TV 수목극 '황후의 품격'이다. 이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2008~2009), '왔다, 장보리'(2014), '내 딸, 금사월'(2015~2016), '언니는 살아있다'(2017) 등 연이어 히트작을 써낸 김순옥 작가와 드라마 '리턴'의 주동민 PD가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시작부터 살인, 협박, 납치 등이 포함된 자극적 전개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장면들로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방대한 스케일에 비해 제작 기간은 짧았고, 지상파 드라마의 고질병인 '생방송 촬영'이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사고가 잦았다. 스태프가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을 한 적도 있다며 SBS를 고발하는가 하면 주연 배우인 최진혁과 신성록이 액션 장면을 찍다가 연이어 다쳤다. 또 초반부터 이어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도 시청률이 15%대를 유지하며 '효자노릇'을 하자 SBS는 최근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주인공인 최진혁이 연장 분량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혀 주인공 없이 막을 내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과 최진혁 측의 불화설까지 불거져 나왔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잡음에 시달린 셈이다. 그래도 주말극 작가의 평일극 진출로 시청률을 챙긴 사례가 나오자 KBS 2TV도 따라 하기에 나섰다. '소문난 칠공주'(2006), '조강지처 클럽'(2007~2008), '수상한 삼형제'(2009~2010), '왕가네식'

구들'(2013~2014), '우리집순이'(2016~2017)의 문영남 작가를 수목극으로 불러들였다. 장남 풍상(유준상 분)과 철없는 동생 넷의 이야기를 담은 문 작가의 신작 '왜그래 풍상씨'는 캐스팅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KBS 주말극에 딱 어울릴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KBS의 기대처럼 이 작품은 주부 시청자들을 끌어오는 데 성공해 시청률 15%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하지만 속을 쥐어뜯는 듯 배배 꼬인 스토리는 '황후의 품격'과는 또 다른 의미로 피로감을 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KBS 2TV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대놓고 사고가 난 경우다. 박신양과 고현정, 두 톱배우의 더블 캐스팅에 지난 시즌의 성공까지, 흥행이 보장된 듯했으나 막상 무경을 열어보니 시청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즌과는 전혀 다른 플롯, 극의 분위기와 트렌드에 뒤쳐진 연출이 발목을 잡았다. 줄곧 불화설이 나돌던 이 작품은 결국 박신양의 부상으로 2주간 결방하기에 이르렀다. 제작진은 결방 기간 재충전을 통해 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이후에도 조달환·이미도 등 조연들의 중도 하차를 놓고 제작진과 배우 소속사 간 이견이 노출됐고, 작가 교체설도 돌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어수선해졌다. 이밖에 갈등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최근 지상파 드라마는 내부 관계자들조차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심지어 '대세' 주지훈이 나선 MBC TV '아이템'조차 시청률이 5% 이하로 주저앉았다. 스타 캐스팅과 화려한 컴퓨터그래픽(CG) 등 불거리는 있지만 정작 잘 깨어지지 못한 스토리가 발목을 잡았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19일 "제작비가 점점 늘어나는 시장 속에서 지상파의 제작비는 점점 줄고 있고, 그래도 성과는 내야 하니 자주 콘텐츠를 잘 만들려고 하기보다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그렇다 보니 자극적인 연출과 일관된 스토리 없이 톱배우 캐스팅에 의존하려는 풍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드라마는 시청자와 가장 근접한 장르라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콘텐츠로 경쟁하는 게 결국은 첩경이라는 것을 지상파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그룹 '루트머지' 초청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김다희) 해금(문보라) 퍼커션(박상민) 국악보컬(서희선) 보컬(윤혜림)단원이 겨울을 보내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루트머지의 대표곡 '바람의 노래'와 '달빛아래 오동잎 모두 지고', 해금독주 '바람이 전하는 말' 25현 가야금 독주 '찬기파랑'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들로 관객들을 찾아가는 공연은 무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국악전수관(350-4557)로 문의하면 된다. /유주윤 기자 yuzu@

홍진영, 3월 첫 정규앨범 발매... 타이틀곡 '오늘 밤에'

가수 홍진영(34·사진)이 오는 3월 8일 첫 정규앨범 '랏츠 오브 러브'(Lots of Love)로 컴백한다. 19일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오늘 밤에'로, 1980년대 디스코 펑크와 트로트를 접목했다. 홍진영이 싱어송라이터로서 재능도 뽑내온 만큼 이번 앨범에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담겼다. 전체 프로듀싱은 히트곡 제조기 조영수 작곡가가 맡았다. 2007년 걸그룹 스완으로 데뷔한 홍진영은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시작으로 '산다는 건', '엄지척', '잘가라'를 연달아 히트시켰다. 그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홍진영은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시작으로 '산다는 건', '엄지척', '잘가라'를 연달아 히트시켰다. 그가 정규 앨범을 발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TV 안내 | | | | | |
|-------------------------------|-----------------------------|--------------------------------------|----------------------------------|------------------------------|----|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KBS1 | KBS2 | MBC | KBC/SBS | EBS | |
| 00 KBS 뉴스광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 | 00 MBC 뉴스투데이 1부 25 MBC 뉴스투데이 2부 | 00 모닝와이드 1부 30 모닝와이드 2부 | 00 한국기행(재) 20 세계대마기행 | 6 |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부) | 50 용왕님 보우하사 | 40 모닝와이드 3부 | 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30 꼬마버스 타요 | 7 |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 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40 강남스캔들 | 00 당동맹 유치원 1 25 당동맹 유치원 2 | 8 |
| 30 KBS 뉴스 | 00 비켜라 운명아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 10 좋은아침 | 00 엄마 까투리 30 윈더블즈 | 9 |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50 아이템 |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 10 |
| 00 김영철의동네한바퀴 50 UHD 현식의 마음 | 00 왜그래 풍상씨 | 25 아이템 | 00 애니캐러리 45 내 친구 코리리 | 20 세계대마기행(재) | 11 |
| 00 KBS 뉴스 12 | | 00 12 MBC 뉴스 25 봄이 오나 봄 | 00 SBS 12 뉴스 50 TV 동물농장 | 00 EBS 정오뉴스 10 EBS 초대석 | 12 |
| 00..KBS네트워크특선 50..다큐 공감 |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35 MBC PICK X 아이 템 55 2시 뉴스 외전 | 00 뉴스브리핑 | 00 지식채널e 10 세상에나쁜개는없다 | 1 |
| 40..세계는 지금 스페셜 50..전국 노래자랑 |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 | | 30 코코몽3 | 2 |
| |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 25 꼬마늘 도도2 55 내 사랑 치유기 | | 00 마사와곰 스페셜 45 레전드히어로삼국전 | 3 |
| 00 사사건건 |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재) | 25 내사랑 치유기 55 5 MBC 뉴스 | 00 SBS 스페셜 | 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45 당동맹 유치원1 | 4 |
|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 |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트립 | 15 내사랑 치유기 | 00 SBS 오뉴스 | 10 당동맹 유치원 2 15 엄마 까투리(재) | 5 |
| 00 6시 내고향 |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 15 생방송 오늘 저녁 | 00 백종원의 골목식당 | 00 특!특! 보니 하니 | 6 |
| 00 KBS 뉴스 7 40 전국이장회의 | 50 원손잡이 아내 |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 00 생방송 투데이 | 00 피피투 안전특공대 30 EBS 뉴스 | 7 |
| 30 비켜라 운명아 | 30 글로벌 24 55 살림하는 남자들 | 55 실험탐사대 |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 40 세계대마기행 | 8 |
| 00 KBS 뉴스 9 55..나의 독립 영웅 | | | |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 9 |
|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UHD습터 | 00 왜그래 풍상씨 | 00 봄이 오나 봄 | 00 황후의 품격 | 45 극한직업 | 10 |
|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 10..육탄병의문제아들 | 10 라디오스타 1부 | 10 백종원의 골목식당1부 50 백종원의 골목식당2부 | 55 EBS 초대석 | 11 |
|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 00 라디오스타 2부 40 합계사는세상 희망.. | 30 나이트라인 |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눈 | 12 |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속 시원한 사주 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2월 20일 (음력 1월 16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 | | | |
|--|--------------------------------------------------------------------------------------------------------------------|--|--------------------------------------------------------------------------------------------------------------|
| | 60년생: 먼저 들어줘야 다음에 부탁할 수도 있다. 72년생: 작은 일이라서 시시하게 생각말자. 84년생: 소심하게 응대 말고 자신있게 받아쳐라. 96년생: 실수가 습관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 66년생: 필요 이상의 것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 78년생: 틈틈이 적당한 운동 또한 결 들어야한다. 90년생: 화합에 매진하며 실리는 행거야겠다. 02년생: 약간의 희생은 감수하면서 지나가자. |
| | 61년생: 도움 받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자. 73년생: 애써사람 눈치볼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5년생: 승패가 뒤바뀔 수 있으니 유의하라. 97년생: 평소대로 근면정직하게 행동하면 된다. | | 67년생: 부부싸움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반가운 연락이 있으나 지출도 따르겠다. 91년생: 성급하거나 짧은 생각은 소문만 무성히 만드니 말을 뱉을 땀 깊게 생각하라. |
| | 62년생: 오후 늦게 운이 풀리니 그래도 다 행이다. 74년생: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 86년생: 나서는 일이 많으니 좋은 기회로 삼자. 98년생: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고생할 수 있다. | | 68년생: 순조로운 상태를 견고히 준비를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0년생: 재물도 충분하고 일신이 편안한 날이다. 92년생: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건강에 해롭다. |
| | 63년생: 문서상 연결되는 일에서 득이 있겠다. 75년생: 만만하게 생각하면 다시 원점일 것이다. 87년생: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잘 구분하자. 99년생: 남을 비판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 | 6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이익이 크다. 81년생: 뒷사람보다는 배우자에게 조언을 얻자. 93년생: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말자. 일도 안 되고 답답하게 고통만 따르겠다. |
| | 64년생: 좋은 기회를 두고 여건이 안 될 수 있다. 76년생: 힘들수록 상대에게 정겨운 말을 건네자. 88년생: 마음을 가라 앉히고 늘 하던대로 하라. 00년생: 이성은 연인이기보다 친구로서 만나라. | | 70년생: 쉬운 방법을 흔들리지 말고 노력하라. 82년생: 바쁜 하루 중에 실속 없는 만남이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94년생: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발로 뛰어야한다. |
| | 65년생: 예상 외의 일에 마음을 움직이지마라. 77년생: 마음을 늦추지 말고 시종 노력해야한다. 89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이 있는 날이다. 01년생: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 이해하지말자. | | 59년생: 바른 방법을 찾아 한 길로 나가야 한다. 71년생: 가족간의 언쟁을 주의하길 바란다. 83년생: 순서가 나쁜 일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95년생: 겸허하게 물러나는 자세가 현명하다. |